

민생경제 살려야 하는데...광주시, 소비쿠폰 재정부담 ‘울상’

시, 소비쿠폰 406억·지역사랑상품권 200억원...재원 마련 고심
도시공원 부지 매입 등 2조원 부채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까지 발목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광주시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책정한 지자체 부담액이 미확정이지만, 광주시 추계결과 소비쿠폰으로 406억원, 지역화폐로 200억원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는 600여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소비쿠폰에 대한 광주시의 분담 예산이 40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비쿠폰에 대한 추정안으로 정부는 당초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을 8대2로 구성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자체 재정이 열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일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지방정부 몫을 10%로 되살려 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9대1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 지방재라도 발행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복지성 지원사업에는 지방재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조성,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 결함 보전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지방재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소비쿠폰의 지자체 분담예산의 지방재 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로서는 앞진대 뒤편격이다. 도시철도 2

호선 사업의 장기화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 등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2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어서다.

추가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분담률(정부대 광주시 5대5)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많은 점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비쿠폰으로 광주시는 시민은 18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이 각각 지급한다. 저소득 비율이 높은 광주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달 기준 광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0만 2329명(광주 전체인구 7.5%대)이고,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자는 3만 6338명(광주 전체인구 2.5%대)까지 포함하면 광주전체 인구의 10%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률을 13%(정부 8%·광주 5%)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광주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도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지방재 발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광주시 담당자는 "전남도와 같이 5개 지자체와 5대5로 지자체 분담예산을 나누더라도 시 재정상황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의원 8명이 8일 광주시 수완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광주시 대표 정책인 통합돌봄을 둘러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전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사례 배운다

국회 연구모임 소속 국회의원 8명 정책·실천 현장 방문

국회 연구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광주시 통합돌봄의 우수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구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의원 8명이 이날부터 9일까지 광주시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본다.

참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권항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남인순(서울 송파병)·서미화(비례)·이수진(경기 성남 중원구)·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비례) 의원, 진보당 전종덕(비례) 의원 등 8명이다. 이들은 건강권, 돌봄,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 소속이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광주를 찾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모델인 광주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 실천 현장을 직접 살폈다.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돌봄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돌봄콜'을 통해 누구든 요청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1대1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신속 지원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졌다고 광주시는 전

했다.

이외에도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 구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 접근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다.

쪽방촌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고, 세탁·샤워·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를 찾은 의원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인 '요리나눔교실', 골목 청소 등 지역환경 사례를 들여다 봤다.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사례도 청취했다.

의원단은 9일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활동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대회 조직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지부와 협약

'2025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가 나섰다.

8일 2025광주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와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 22~28일 광주에서 열리는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마련된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보유한 장애인 특장차량과 전문 운전인력 자원을 대회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직위는 장애인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입출국 수송에 하루 10대, 경기장 수송에 하루 16대의 차량을 투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 중 7대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탈리아 토리노, 네덜란드 스키토벤호스에 이어 세 번째이자 국내에서 최초로 광주 2025 세

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비장애인 대회와 동시 개최된다.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비장애인 선수들과 동일하게 전통적인 곡선형 활을 사용하는 리커브, 도르레가 달린 기계식 활을 사용하는 컴파운드 등 두 종류의 활을 가지고 시합한다.

다만 비장애인대회와는 달리 장애인등급에 따라 리커브, 컴파운드, 중증장애, 시각장애 각각 남·녀 개인전, 남·녀 단체전, 혼성전으로 구분하여 총 17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중증장애 부문에는 사지마비, 중증 근력 저하, 사지 절단 등 심각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며, 시각장애 부문에는 전맹(V11)과 형태를 인식할 수 있는 V12/3 등급의 선수들이 출전한다. 7월 7일 기준 40개국 417명(리커브 84명, 컴파운드 81명, 중증장애 46명, 시각장애 17명)의 선수가 엔트리 등록을 마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구례 자연밥상·영암 독천낙지거리...전남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10억원 투입...환경 개선 사업 추진

전남도가 8일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와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를 '남도음식거리' 조성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남도음식거리는 특색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통해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명품화 사업이다.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 마산면 화엄사 입구 일원이 대상이다. 산채정식, 버섯전골 등을 대표메뉴로 하는 16개 음식점이 운영 중이며, 지리산의 정적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으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구례군은 음식거리 주변에 지리산 역사문화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반야원 플라타너스 등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반달가슴곰 조형물과 자연송이버섯 상징물 등 지역 생태와 특산물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로 '구례만의 음식거리'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는 영암 학산면 독천 5일시장 부근이다. 갈낙탕과 낙지초무침 등 낙지와 한우를 접목한 요리로 이름이 나왔다.

영암군은 사업 선정을 계기로 음식거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보행환경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영암 고유의 낙지요리 개발을 통해 전남 낙지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올해 선정된 음식거리에 개소당 총 10억원(도비 5·군비 5)을 투입, 상징물 설치와 간판 개선, 보행로 정비, 주차 공간 확충 등 이용자 중심의 환경 개선 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2개 시군별 다양한 남도음식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별 특색있는 남도음식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며 "남도 고유의 맛과 문화를 관광객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전달하도록 조성 이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지정한 남도음식거리는 총 21곳으로, 19곳은 조성이 완료됐다. 남도음식거리 위치와 대표 음식점 등 자세한 정보는 '남도음식명가&남도음식거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창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